

## '5극3특 성장동력 픽앤백(Pick&Back)' 2일차 방문

- 뭐 먹고 살래??? : 현장에서 성장동력 Pick, 투자까지 Back -
- 6.16(화)~6.17(수) 이틀간 서남권·대경권의 미래먹거리 산업 점검
- 광주 AI 산업융합 집적단지 내 AI 및 미래차 산업 현장 방문
- 구미에서 대구경북 소재 로봇, 피지컬 AI, 소부장 기업과 지원방안 논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차 「5극3특 성장동력 픽앤백(Pick&Back)\*」의 일환으로 전날 해남 솔라시도 방문에 이어 6.17(수)에는 광주 AI 산업융합 집적단지와 경북대구 LG이노텍 산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고, 제4차 및 제5차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를 개최하였다.

\* 5극3특 지역별 각 산업현장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Pick)하고, 체계적 지원(Back)까지 연결

### [ 광주 AI 산업융합 집적단지 방문 및 제4차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개최 ]

구 부총리는 먼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과 함께 광주 AI 산업융합 집적단지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국가AI 데이터센터\*를 방문하고,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 자율주행 실증시설을 둘러본 뒤 제4차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회의를 주재하였다.

\* 아시아 최초로 엔비디아 H100 GPU(최첨단 그래픽처리장치) 장착 등 초고성능 연산능력과 저장용량을 갖춘 데이터센터로, 국내기업·대학·연구기관의 AI 연구개발 지원

#### <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제4차 회의 개요 >

- 일시 및 장소: '26.6.17.(수) 09:00~11:00, 광주 AI 산업융합 집적단지
- 참석자
  - <정부·경제단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 <기업> 리벨리온, 딥엑스, 모빌린트, 엡지에이아이, 에스오에스랩, 엘리스, 인디제이, 인트플로우, DH그룹, 한국알프스, 에니트
  - <대학·연구소> GIST, 광주테크노파크, 한국광기술원,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구 부총리는 먼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지방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광주의 미래산업인 “AI와 자율주행차 산업은 반도체·소프트웨어·센서 등 첨단기술과 제조업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과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를 견인할 핵심 분야인 만큼 광주를 세계적인 산업 거점으로 육성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석 기업인과 전문가들은 광주의 AI·미래차 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발전 잠재력을 언급하면서도, 실증 기회와 초기 레퍼런스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였다.

구 부총리는 참석자들의 건의에 공감하며, 정부가 현재 ‘AI 대전환 15대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예산·세제·금융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리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술혁신, 투자 및 해외시장 진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차 산업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6.4월 광주 전역을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한 데에 이어, 미래모빌리티 인지부품 특화 시험 평가센터를 구축하여 지역 기업의 라이다(LiDAR), 레이더, 카메라 등 핵심 부품의 성능 검증과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언급하였다.

### [ 경북대구 LG이노텍 방문 및 제5차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개최 ]

이어 구 부총리는 LG이노텍 구미 4공장을 방문하여 생산 라인을 견학하고, 이철우 경북지사와 함께 로봇·실물 인공지능(피지컬AI)·소재부품장비 기업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우리 산업의 기초체력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다지는 동시에, 제조 혁신을 이끌 로봇과 실물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제5차 회의 개요 >

- 일시 및 장소: '26. 6. 17.(수) 15:10~17:30, LG 이노텍 구미 4공장
- 참석자
  - <정부경제단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경상북도지사, 대구광역시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구미시장, 대구상의 부회장, AI·로봇산업협회장, 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
  - <기업> LG이노텍, SK실트론, 두산로보틱스, 아이엠로보틱스, KEC, 에이프로세미콘, 원익큐엔씨, THN, 에스엘, 아진엑스텍, 뉴로메카
  - <대학·연구소> DGIST, 경북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뇌연구원, 경북 K-과학자

구 부총리는 “이제는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경제 대도약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 및 기술혁신 등 미래 대응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기”이며, “오늘 이 자리가 경북·대구의 제조역량과 연구역량, 기업의 혁신역량을 하나로 연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업 및 전문가 간담회는 로봇, 실물인공지능(피지컬 AI),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구 부총리는 “로봇과 피지컬 AI는 생산현장을 바꾸고, 소부장은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산업의 기초체력”임을 강조하며, 피지컬 AI 선도기술개발 사업 등 정부의 육성·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하였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로봇·실물 인공지능 분야 실증환경 구축”, “실물 인공지능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로봇, 실물 인공지능, 소부장 산업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구 부총리는 “국내 인공지능·로봇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피지컬 AI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sup>①</sup>양질의 제조 데이터를 축적·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sup>②</sup>AI 로봇 대규모 실증·사업화와 함께 <sup>③</sup>초기 수요창출을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구 부총리는 “로봇·피지컬 AI의 핵심부품인 초정밀 센서와 액추에이터의 기술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실증·사업화를 총력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며, “전략적 타겟팅 센서 분야를 지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특화된 액추에이터 원천기술 개발과 함께 고성능 액추에이터 상용화를 위한 현장 실증을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금번 서남권, 대경권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5극3특 성장동력 픽앤백(Pick&Back)’을 통해 다른 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지역별 미래먹거리 산업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혁신성장실 지역경제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대연 (044-215-4570)
		담당자	사무관 윤현곤 (gonnnn@korea.kr) 사무관 박주현 (zoopark@korea.kr) 사무관 이동은 (movingiz@korea.kr) 주무관 백철민 (novalet@korea.kr)
	혁신성장실 기업환경과	책임자	과 장 장인주 (044-215-4630)
		담당자	서기관 박지영 (jy0505@korea.kr) 사무관 김정진 (jeongjin11@korea.kr) 사무관 이지현 (2zhyun@korea.kr) 주무관 이민섭 (lms1446@korea.kr)
담당부서 <협조>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	책임자	팀 장 강민재 (02-6050-3442)
		담당자	연구원 박경언 (pgu@korcham.net)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실	책임자	실 장 설송이 (02-6000-5201)
		담당자	차 장 이경우 (kw.lee@kita.or.kr)